

일본 중근세 이행기의 인부 동원 방법의 변화

고니시 다쿠미 (교토대학)

1. 머리말

1.1 연구의 대상과 의의

본 연구는 일본의 중근세 이행기(15·16세기)에 인부의 동원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본 보고에서 ‘인부’란, 정치권력에 의해서 전쟁·축성·방재를 위한 노역에 동원된 촌락·마을에 거주하는 백성(≒민중)을 말하며, 이 노역을 ‘인부역(人夫役)’이라 부르겠다.

해당 시기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국시대’라고 칭해지는 것처럼 각지에서 전란이 빈발하였고, 정치권력자인 전국다이묘가 각각의 영국(=지역지배권)을 형성하였다. 전국시대의 인부역은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운용하는 것이 체제 존속의 사활 문제였던 반면,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생명의 위기를 수반하는 가혹한 과역이었다. 즉, 양측은 인부역을 둘러싸고 늘 긴장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인부역은 당시의 정치·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데 뛰어난 소재가 된다.

1.2 선행연구의 정리와 과제

전국시대의 인부역은 권력론과 촌락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권력론에서는 많은 논자들이 인부역을 소재로 각 전국다이묘의 지역 지배에 평가를 부여해 왔다. 촌락론에서는 후지키 히사시가 촌락의 자율성에 주목하면서 촌락 내에서의 인부역 양상을 밝혀왔다(후지키 1997). 또 이나바 쓰구하루는 대상 시기를 근세로 연장하여 동원 논리를 규명하였다(이나바 2009). 그리고 이케가미 히로코는 양론을 통합하는 시도로서, 촌락의 변용을 전제로 권력에 의한 편성을 논하였다(이케가미 2012).

다만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는 두 가지 과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부역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중근세 이행기의 정치·사회의 구조 변화 속에서 평가하지 못한 점이다. 일본의 15·16세기는 중세의 정치·사회·경제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장원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권력-전국다이묘-에 의한 영국제가 구축된 과도기로 파악된다. 기존의 연구는 정치권력과 민중의 대립 구도 속에서 파악하며 양쪽의 관계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최근 현저하게 진전되고 있는 무로마치 시기 장원제의 연구¹⁾(이토 2010)를 참고하여, 위의 둘에 더해 사찰이나 구제와 같은 장원 영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 대상 지역이 도고쿠(관동 고신지방)에 치우쳐 있는 점이다. 그에 따라 이나바 쓰구하루나 이케가미 히로코의 연구에서는 전국시대의 호쿠조영국(관동지방)과 기나이 근국(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지방)이 충분히 구별되지 않고 일체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전국시대 도고쿠 지역이 훗날 통일 정권의 기반이 되는 기나이 근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일 지역의 전후 시대와의 연결을 의식해야 한다.

1.3 연구의 시각

과제를 받은 본 연구의 시각과 방침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여전히 장원 영주의 존재감이 강했던 무로마치 말기(15세기 후반)와 이들의 위상이 떨어진 전국 후기(16세기 중반 무렵)를 대비하면서 논하겠다. 또 시대의 연속성을 의식하며 중근세 이행기의 기나이 근국의 인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방침으로는 촌락론에서 성과가 축적된 ‘가(家)’론²⁾과의 접합을 도모하면서 권력론

1) 과거에는 중세 후기의 무로마치 시대를 장원제의 해체기 혹은 완만한 붕괴기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중세 후기에도 장원제가 존속했다는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 시각에서 인부역의 변화를 밝히고, 이행기의 정치·사회의 구조 변화를 깊게 살피고 싶다.

2. 무로마치 말기(15세기 후반)의 인부 동원 방법

2.1 무로마치 말기의 인부역의 부과·공출 실태

15세기 말 무로마치 막부에 의한 인부역 부과와 그에 대한 촌락 백성들의 반응(공출 여부)을 살펴보고 3장과 비교하는 전제로 삼는다. 방법으로는 인부역에 관한 무로마치 막부 봉행인 봉서(당시의 행정문서)를 집적하여 검토했다. 28통의 문서에 나타나는 부과와 특징을 분석하면, 주된 것으로는 ①장원 영주를 통한 간접적인 부과 ②공동체별 인원 지정(100~500명, 구분하기 편한 수) ③기일 지정(3~8일 후)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정치권력 측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촌락공동체가 반드시 순종적으로 응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공출의 실태로 눈을 돌리면 엔토쿠 3년(1491)의 사례에서는 모두 150명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촌락측은 이를 거부하여 실제로는 60명밖에 공출하지 않았다³⁾. 이와 같은 사례는 5개가 더 확인되었다. 즉, 해당 시기의 촌락공동체가 인부의 공출 거부나 감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정치권력측은 인부역의 운용에 애를 먹었다는 말이 된다.

2.2 무로마치 말기의 장원 영주의 역할

해당 시기의 인부역을 둘러싼 부과 주체인 막부<권력>과 공출 주체인 재지<촌락>와의 관계는 대립적이었지만, 당초 직접 교류하는 일 자체가 적었다. 기존에는 간과되어 왔지만 무로마치 시기 장원제 하에서는 촌락공동체의 영주는 사찰이나 구계(귀족)였고, 막부는 간접적으로만 인부역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 장원 영주층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오 2년(1493) 도지령의 촌락에 막부로부터 인부가 100명 부과되었을 때에는, 도지(=장원 영주)가 사이에 서서 막부에 감면을 요청하여 40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⁴⁾. 한편 촌락측이 무단으로 인부역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막부에 보고하였다. 즉, 해당 시기의 장원 영주는 막부와 촌락공동체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2.3 무로마치 말기의 인부역의 특징

무로마치 말기의 인부역은 정치권력자의 명령일지라도 촌락의 거부와 감면 요구로 인해 철저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인부역의 수취를 둘러싸고 권력자와 촌락공동체는 대립 관계에 있었으나, 장원 영주가 완충제 기능을 함으로써 일단 인부역의 부과-공출이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원 영주의 지위는 급속히 저하되고 장원제는 한계에 다다른다. 또, 전란은 더욱 격화되어 새롭게 부상한 전국다이묘에게는 자신들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인부역의 안정적인 운용이 보다 중요해진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부 동원 방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3. 전국 후기(16세기 중반 무렵)의 인부 동원 방법

3.1 집 단위 인부역과 '집'의 성립

무로마치 말기까지의 인부역의 형태는 덴분년(1532-1555)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무로마치 막부의 인부역 관계사료에는 특징적인 문구가 보인다. 덴분 15년(1546)으로 추정되는

2) 일본 촌락에서의 영속적인 '집'의 성립이 중세 후기에 있었다고 간주하는 논의(사카타 1997).

3) 『야마시나가 예기』, 엔토쿠 3년 8월 23일~26일의 각일조. 야마시나 시치고에 대한 인부역의 부과.

4) 「입일구방공승평정인부」, 메이오 2년 2월 10일조·동12일조(도지백합문서지함26).

사료에 인부역을 '인별가차(人別家次)'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⁵⁾. 이와 같이 해당 시기에 출현한 '집마다(家次)', '집 단위로(家並)'는 '집'마다 1명의 인부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즉, 2장에서 확인한 무로마치 말기(15세기 말)의 인부역에서는 공동체 단위로 인원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전국 후기에는 '집'을 부과 단위로 한 인부역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에서는 이것을 집 단위 인부역이라고 정의한다.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집'을 부과 단위로 하는 인부역이 성립된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치사적 요인이다. 전국시대는 전란이 증가하여, 기존에는 교토에 축성하지 않았던 아시카가 쇼군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었다. 전란 시기이기 때문에 인부의 동원 횟수가 점차 증가한 것이 집 단위 인부역으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집'을 부과 단위로 하는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요인인 사회사적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장의 연구 시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의 중세 촌락사 연구에서는 조상 제사 등을 행하는 영속적인 '집'이 중세 후기에 성립했다고 밝혀졌다(사카타 1997). 또 도시 연구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적된다(미에다 2014·나가사키 2019). 그러한 촌락·마을 연구 중에서는 일찍이 가쓰마타 시즈오가 전국시대에 촌락 내에서의 노역을 '집'마다 부과하는 '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가쓰마타 1996), 후지키 히사시도 그것이 '집 단위로', '집마다'라는 문언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해 왔다(후지키 1997). 요컨대 중세 후기의 촌락공동체에서는 백성의 '집'(능핵가족적인 집)이 성립되어 가역이 부과되기 시작된 것이다. 한편, 정치권력은 이러한 촌락 내에서의 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촌락 내의 노역 시스템을 흡수하는 형태로 집 단위 인부역을 제도적으로 부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2 집 단위 인부역의 전개와 다른 변화

텐분연 동안에 시작된 집 단위 인부역은, 기나이 근국에서는 권력 간을 넘어 미요시 씨나 롯카쿠 씨 등 몇몇 전국다이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다이묘가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훗날 통일정권으로 도약하는 오다 씨도 집 단위 인부역을 계승하였다⁶⁾. 이는 정치권력이 기반이 된 해당 지역의 촌락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집'과 '가역'이 성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전국 후기(16세기 중반 무렵)의 인부역에는 부과 단위 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장원 영주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였으나, 전국시대가 되면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했다(각주 5, 6). 또 일시 지정의 경우 무로마치 말기는 3~8일 후였으나, '내일', '모레'(각주 6) 등의 표현도 있어 전체적으로 조기화되었다. 전자는 전란을 통한 동원의 증강, 후자는 전란에 따른 절박감이 각각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두 시기 모두 장원 영주의 지위 저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무로마치 말기의 며칠 유예기간은 장원 영주가 촌락과 권력 사이에서 감면교섭을 하던 시간이었으며, 그것이 조기화된 것은 권력에 의한 인부역의 강제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 전국 후기의 인부역의 특징

전국시대 인부역의 특징은 '집'을 부과 단위로 한 집 단위 인부역이 성립되면서 전개되었다. 이 인부역은 재지의 촌락에서 행해지던 가역의 관습을 정치권력이 흡수하여 제도화한 것이었다.

5) (텐분 15년가) 11월 4일자, 무로마치 막부 봉행인 봉서(도지백합문서 에함181).

6) 덴쇼 2년(1574) 6월 6일자, 평방명주백성주완판물(『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서집1』 88호).

또, 전란의 영향을 받아 도구 지참 지령이나 일시 지정의 조기화가 보여 인부역 자체도 강화되었다. 즉 집 단위 인부역은 장원제가 해체되고 전국다이묘가 자신의 영지(영국)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현하여 촌락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집 단위 부역의 부과가 전후로 확인되는 에이로쿠 3년(1560)에는 가구 수 조사가 실시되어, 집 단위의 공출을 확실시키는 정책이 채택되었다⁷⁾. 이것은 후에 근세 초기(16세기 말~17세기 초)의 가구 인원수 조사와 집 단위 인부역장 작성이라는 사람·집을 지배하는 기본 대장으로 이어지는 맹아이기도 하였다.

4. 맺음말과 향후의 과제

본 보고에서는 중근세 이행기(15·16세기)에 있어서의 인부역의 변화를 '집'과 가역의 성립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용에 주목하면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장원제의 해체로 인해 무로마치 말기까지는 장원 영주가 담당하던 매개자의 역할이 상실되었고, 전국시대에는 영국제로의 이행 속에서 집 단위 인부역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력이 촌락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정치제도로서의 인부역의 변혁은 사회구조의 변화로 규정되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과제로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동원 방법의 실태 규명에 주안점을 두어 권력자의 동원 논리(동원이데올로기)와 민중의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정치권력이나 공동체에 의한 민중의 편성·동원이라는 문제는 인류사회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동원 논리(이데올로기적 차원)와 동원 방법(정책적 차원)의 관계성, 혹은 이데올로기 작동에 의한 민중의식의 변화라는 문제에 대해 예리한 고찰을 할 수 있다면, 인문과학으로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권력론으로서 한층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池上裕子(2012) 『日本中近世移行期論』 (校倉書房、2012年)
伊藤俊一(2010) 『室町期莊園制の研究』 (塙書房、2010年)
稻葉継陽(2009) 『日本近世社會形成史論——戰國時代論の射程』 (校倉書房、2009年)
勝俣鎮夫(1996) 『戰國時代論』 (岩波書店、1996年)
坂田聰(1997) 『日本中世の氏・家・村』 (校倉書房、1997年)
長崎健吾(2019) 「戰國期京都における都市民の社會的結合と「家」」 (『史學雜誌』128編—9号、2019年)
藤木久志(1997) 『村と領主の戰國世界』 (東京大學出版會、1997年)
三枝曉子(2014) 「「町」共同体をめぐって」 (『歴史科學』218号、2014年)

(번역책임자:김예진)

7) 『메시로 일기』, 에이로쿠 3년 2월 22일조.